

글램과 펑크 메이크업의 비교 연구 - 1970년대를 중심으로 -

정 현 숙[†] · 정 희 영^{*}

부경대학교 디자인학부, 계명문화대학 뷰티코디네이션학부*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the Glam and Punk Make-up - Focused on the 1970s -

Hyun-Sook Chung[†] and Hee-Young Jeong^{*}

Dept. of Desig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Dept. of Beauty Coordination, Keimyung College*

(2008. 9. 8. 접수일 : 2009. 1. 12. 수정완료일 : 2009. 2. 26. 게재확정일)

Abstract

Popular music unites people who have different genders, ages, locals, and values. Through the popular music, youth interchange their emotion and create their fashion. Fashion and music formed the twin pillars on which the first historically significant youth sub-culture was built. Glam rock and Punk rock which won popularity in the 1970s influenced the fashion of the tim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Glam and Punk make-up which appeared as a symbol of the rebel against an older generation. The methodology utilized in this study was the analysis of materials from the survey through the literature, internet sites, and visual referen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face make-up, Glam used a white base to appear cosmic; on the other hand, Punk used a white base to appear pale and horrid. In eye make-up, Glam used black, pink, and blue eye shadow, and accented the eye by using black eye lines. Punk used black eye shadow, and drew black circles or squares around eyes. In lip make-up, Glam used pink, purple, red, and black lip color and silver and pink lip gloss to glitter. Punk used red and black lip color to appear horrid. In body make-up, Glam used glitter powder to appear with a bright skin. Punk drew tattoos and horror patterns in their body.

The common themes of Glam and Punk make-up were rebellion, androgyny, and the beauty of ugliness as well as a self-created persona.

Key words: Glam and Punk make-up(글램과 펑크 메이크업), face make-up(피부 화장), eye make-up(눈 화장), lip make-up(입술 화장), body make-up(바디 메이크업).

[†] 교신저자 E-mail : cbunghs@pknu.ac.kr

I. 서론

현대 사회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대중음악은 세대, 성별, 장소, 그리고 삶의 가치관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만들어 준다. 대중음악은 현대 사회에서 문화교류의 중요한 매개체 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전 세계 젊은이들의 의식과 감성을 서로 교류하게 만든다. 그들이 교류하고 공감하는 대중음악을 통해서 그들의 패션을 구체화하며, 그들의 감성을 표현한다. 패션과 음악은 젊은이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했으며,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1970년대 전반에 유행했던 글램 록(Glam Rock)과 1970년대 후반에 유행했던 펑크 록(Punk Rock)은 종래의 낭만적인 노래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기존의 질서와 권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과 욕구 불만을 강력히 표현한 힙과 불만의 돌파구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음악은 대중매체에 의해 전 세계에 전파되었고, 패션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97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 꽃 피웠던 록음악의 갈래인 글램 록과 펑크 록의 영향 아래 성장했던 글램 패션과 펑크 패션에 대한 재조명이 최근 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 F/W 컬렉션에서도 글램 패션과 펑크 패션이 많이 보여졌고, 메이크업에서도 반짝이는 아이세도우와 립글로스를 사용하여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글램 메이크업과 검은 아이라이너를 두 겹게 발라 눈을 신하게 강조한 펑크 메이크업이 많이 보여졌다. 로커(Rocker)들은 음악을 통해 자신들의 의지와 감정을 세상에 알렸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의상 및 헤어 스타일과 메이크업 등을 통해 패션을 유행시켰다. 글램과 펑크 패션은 최근에도 유행하고 있으며, 패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두 패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글램과 펑크의 헤어 스타일에 관해 비교 분석한 논문은 발표되었으나, 독특하고 개성 강한 글램과 펑크의 메이크업에 관해 비교 분석한 논문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악과 패션을 관련시켜 글램 록과 펑크 록의 영향을 받은 메이크업을 두 음악 장르와 비교하여 메

이크업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70년대에 유행했던 글램과 펑크 패션 중 기존 질서와 관습에 대한 반항으로 나타난 글램과 펑크의 메이크업을 비교 분석하는데 있다. 이러한 두 메이크업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음악과 메이크업의 관계와 음악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추후 새로운 음악의 발생으로 유행할 패션과 메이크업을 예측할 통찰력을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 방법은 패션 및 비용 관련 서적과 논문을 통한 문헌적 고찰과 인터넷 사이트와 시각적 자료를 통하여 분석되었다.

II. 이론적 배경

1. 글램 록과 펑크 록의 발생 배경

록(Rock)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인데, 이 무렵 록 뮤직은 초기 로큰롤과는 달리 표현 양식이나 내용면에서 예술적으로 세련되기 시작하였고, 전위음악을 시도하는 젊은 음악인들과 재즈 뮤지션들도 록에 관심을 가졌다. 록 뮤직은 프로그레시브 록(Progressive Rock), 포크 록(Folk Rock), 아트 록(Art Rock), 재즈 록(Jazz Rock)으로 변화하였고, 1980년대의 코스믹 뮤직(Cosmic Music)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개성이 강한 음악으로 발전해 갔다.

1) 글램 록

글램 록(Glam Rock)이란 글래머(Glamour)의 줄인 말로 사전적 의미로는 '현란한' 혹은 '매혹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미국에서 글램 록은 글리터 록(Glitter Rock)으로도 불리어졌는데, 글리터(Glitter)는 '현란, 휘황찬란한' 등의 의미가 있다¹⁾. 글리터 록은 화려한 부대로 유명한 게리 글리터(Garry Glitter), 슬레이드(Slade), 마크 볼란(Marc Bolan), 데이빗 보위(David Bowie)와 같은 뮤지션들의 음악을 가리킨다²⁾. 정동 록이 추구했던 꿈이 좌절되고, 글램 록이 등장했다.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발전했던 사이키델릭 록(Psychedelic Rock)은 마리화나나 LSD 등의 약물

1) J. A. Simson and E. S. C. Weiner,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New York: Clarendonpress, 1989), p. 552.

2) 이현주, "현대 패션에 나타난 Glam에 관한 연구-David Bowie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 3.

효과로 인한 감각의 확장을 음악에 적용시키려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 부작용으로 약물 중독자를 양산했다. 또한, 록 콘서트인 우드스탁 페스티벌(Woodstock Festival)도 축제라는 공동체적인 장을 통해서 소외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고, 반전과 평화의 정신을 찬양하고자 했던 본래의 의도에서 벗어났다. 따라서 1970년대는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저항문화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 요청이 대중음악 쪽에서 글램 록으로 나타났다³⁾. 록이라는 음악을 통해 그들 특유의 청소년 문화를 탄생시켰으며, 젊은 세대의 주장을 록 가수들이 대변하였다. 이들의 스타일은 저항적이고 과격한 무대 매너로 표현되었지만, 언더그라운드를 따라 퍼져 나가면서 대중화되기 시작했다⁴⁾. 글램 록 가수의 의상은 컬러 TV와 잡지, 영화 등의 대중매체로 인해 젊은이들에게 급속히 전파되었다⁵⁾.

2) 펑크 록

1970년대 말 약화일로에 있던 국제 정세에 따른 실업률의 증가는 십대들에게 불안과 초조를 초래하였다. 특히 이러한 실직에 대한 불안은 영국에 이민 온 소수 인종인 흑인과 파키스탄계 인도인들의 자녀들에게는 심각한 것이었다. 영국 정부의 인종차별에 심한 반발을 느낀 런던의 십대들은 이 소수 집단의 좌절, 절망, 분노, 공포를 그들 스타일에 풍자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정치적인 항거 운동을 해나갔다. 펑크는 이러한 경제적 위기를 겪으면서 그 동안 무시되어 왔던 영국의 청년 노동자 계급을 대변하는 반문화적인 운동이 되었다. 펑크는 절서와 균형을 무시한 예술과 파괴주의자들로서 아방가르드 그룹인 미술대학생들에게 열광적으로 퍼져 나갔다. 인류 역사의 영원한 숙제인 사회계층, 인종차별에 대한 무언의 항거, 기성세대가 독점한 사회에서의 좌절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야망의 포기는 펑크로 하여금 철저한 허무주의, 무질서, 무정부주의로 도피하게 만들었다⁶⁾.

펑크 록 가수들은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폭 넓은

공감을 얻어냈다. 펑크 밴드들의 노래에는 압제와 폭력, 빈곤과 실업, 그리고 정치적 부패로 인해 젊은이들의 미래는 암울하다는 주장이 강렬한 리듬을 타고 반복된다. 펑크 록의 대표적인 그룹인 섹스 피스톨즈(Sex Pistols)는 격렬한 사회비판의 메시지를 지닌 노래와 침울한 사운드 그리고 보컬리스트 자니 로튼(Jonny Rotten)의 아나키한 성격으로 영국은 물론 전세계의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은 관객들과 육설, 폭력을 주고받는 등 극단적인 행동으로 기존 질서와 엘리트주의적인 감성에 대한 분노를 분출시켰다⁷⁾. 이들의 조잡하고 난폭한 생활방식은 단순히 음악계의 차원을 뛰어 넘어 1977년에는 하나의 지배적인 청년문화가 되었다.

1970년대 전반과 후반에 등장한 글램 록과 펑크 록은 당시에는 매우 낯설고 충격적인 음악 장르였으며, 젊은이들 사이에 저항문화를 형성시켰다. 1970년대 유행했던 글램 록과 펑크 록의 뮤지션들의 패션이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에도 젊은이들은 뮤지션에게 열광적이며, 그들의 패션을 모방하고 있다.

2. 글램 패션과 펑크 패션의 특징

1) 글램 패션(Glam Fashion)

글램은 1970년대 초반 영국에서 시작된 하위문화이며, 글램의 창시자는 데이빗 보위(David Bowie), 게리 글리터(Gary Glitter), 마크 볼란(Marc Bolan) 등이다. 글램 록은 몽환적이며, 싸이키델릭하고 환상적이며 우울함이 배인 멜로디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글램 패션은 글램 록 가수들의 패션에 영향을 받아 발전되었다. 마크 볼란은 반짝이고 화려한 글리터 패션을 자주 입었다. <그림 1>에서와 같이 글램 록 가수들은 비즈, 스텝글, 크리스털, 보석 등의 디테일로 의상에 반짝임을 준 스타일을 추구했다. 1970년대의 '양성성(Androgyny)'은 글램 이미지의 일부

3) 서이자, “포스트모던 음악의 등장과 민중문화 전통의 재건-1970년대 글램록과 펑크록에 대한 신문화사적 해석-,” *미국사 연구* 16호 (2002), pp. 255-256.

4) 김은아, “글램 스타일의 디자인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p. 10-11.

5) *Ibid.*, p. 7.

6) 김민자, *복식미학 강의 2*, (서울: 교문사, 2004), pp. 183-184.

7) 서이자, *Op. cit.* (2002), p. 260.

가 되었다. 마크 불란과 로드 스튜어트 데이빗 보위가 여성처럼 화려한 의상에 진한 메이크업과 과격한 색상으로 머리를 염색하였다. 1969년 우주선이 달에 착륙한 것을 기점으로 공상과학에 관련된 물체나 색채는 디자이너와 건축가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제공하였다. <그림 2>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패션에서도 다양한 최첨단 신소재를 사용한 미래지향적인 성향이 나타났다. 데이빗 보위는 부끄럼, 땀뻣한 감속성



<그림 1> 윌렘 패션(Fashion, p. 415)



<그림 2> 윌렘 패션(Street style, p. 74).



<그림 3> 글램 패션(Street style, p. 74).

의 은색 우주복을 입었다. 이 의상은 우주인의 페르소나를 표현하였으며, 그들은 화려하고 저항적인 패션을 통해 그들만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림 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대중문화 속에서 1970년대 글램 록 가수들의 패션은 우아미와 세련미를 중시하는 종래의 복식 개념에서 탈피하는 혁명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⁸⁾.

2) 펑크 패션(Punk Fashion)

펑크는 펑크 록 음악에서 비롯되었으며, 펑크의 진보적이고 혼란스러운 운동은 1970년대 패션 발전에 혁신적인 기여를 하였다. 펑크 스타일에서는 플라스틱 가방, 안전 핀 등이 결합되어 충격적이고 자조적인 이미지를 제시했다. 펑크는 나치 휘장을 스타일의 기본으로 삼았는데, 나치라는 배경은 삭제되고 충격을 자극하는 장식으로 재해되었다. <그림 4>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머리는 완전히 밀어버리거나 위쪽으로 업색했으며, 나중에는 보헤미안 스타일이 되었다⁹⁾.

디자이너인 잔드라 로즈는 종래 복식 디자인의 원리음 빛이나 가위질음 하여 구멍을 만들고, 옷핀과 체인 줄로 아름다운 레이스와 트리밍을 대신하였다. 색은 죽음을 상징한 검정이 지배적이었다. 잔드라의 이 이념은 펑크에게 많은 환영을 받았다¹⁰⁾.

1977년에 잔드라 로즈는 펑크 슈크 컬렉션을 열었다. 그녀는 펑크의 안티 스타일적 요소의 일부뿐 독창적으로 받아들여서 재탄생하게 만들었다. <그림 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드레스에 구멍을 만들어 금실로 바느질하고, 가장자리를 갈갈이 찢어서 멋지게 수를 놓았다. 어깨를 드러내고 천조각을 금으로 만든 옷핀과 진주장식으로 강조하였다. 이 컬렉션으로 펑크는 상류층의 주의를 끌게 되었다. 펑크는 로커의 모터바이크 재킷, 싸이키델릭의 인공적인 색상 등 다양한 자료로부터 스타일적인 영감을 끌어낸 다음 독창적으로 혼합하였다. 펑크족의 의상, 변색되는 금속제 장신구, 화려한 헤어 스타일, 단순한 흑백의 메이크업은 너무도 대조적이어서 결합시키는 것이 적절

8) 정희영, 정현숙, “글램과 펑크의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구-1970년대를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5권 5호 (2007), p. 47.

9) Royshuker, *대중음악사전*, 이정엽, 강호연 역 (서울: 한나레, 1999), p. 332.

10) 김민자, *Op. cit.*, p. 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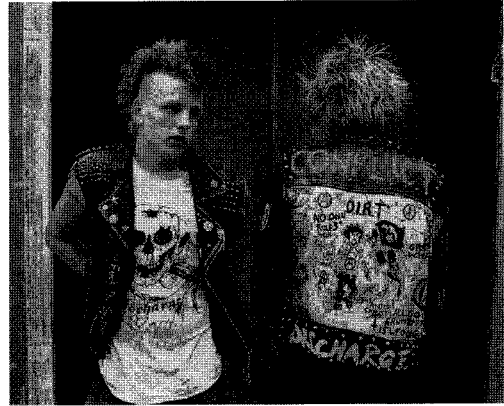


<그림 4> 펑크 패션(*Street style*, p. 91). <그림 5> 펑크 패션(*Street style*, p. 8).

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그들의 특성이며 거기에는 남녀의 구별이 없었다. 그러한 복식상의 혼란이 펑크와 펑크 이데올로기의 핵심이었다. 이러한 펑크의 속성은 주류 스타일과 패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¹¹⁾.

<그림 6>에서처럼 펑크는 개성을 표현하기 위하

여 의류를 집에서 직접 만들었으며, 찢어진 청바지, 충격적인 헤어 스타일, 직접 그림을 그리고 버튼을 만들어 단 김정 가죽 재킷 등은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의 표현이었다. 펑크 스타일의 대표적인 모습 중 하나는 가죽 점퍼를 입고, 귀와 배꼽, 코에 구멍을 뚫어 반지, 면도날 등으로 많은 장식을 한 것이었다.



<그림 6> 펑크 패션(*Fifty years of Fashion*, p. 97).

<표 1> 글램과 펑크 패션의 특징

구분	글램 패션의 특징	펑크 패션의 특징
형태(실루엣)	남성: 인체를 조이는 실루엣 여성: 심플한 팬츠나 투피스, 광택있는 재킷과 팬츠	징 박힌 가죽점퍼의 과장된 실루엣
색상	남성: 화려하고 사이키델릭한 색상, 분홍색, 파란색, 은색 여성: 저채도, 저명도	검정, 불결한 색상
소재	남성: 메탈릭 소재, 반짝이는 소재, 가죽, 벨벳, 모피, 비즈, 세련 여성: 거칠고 투박한 직물	가죽, 금속성
무늬	동물무늬, 스트라이프, 체크무늬	그라피티 무늬, 반항적인 문구
장식	동물의 털, 서링, 반짝이는 손톱장식	급속성 장신구(금속 징, 면도칼, 안전 핀, 피어싱, 쇠사슬)
신발	플랫폼 부츠	군화
표현된 이미지	저항, 앤드로지너스, 우주인, 페르소나, 과기하고 천박한 추의 이미지, 동물부늬로 인한 도전적 이미지, 과다한 장식	저항, 공격, 폭력적, 앤드로지너스, 추의 미, 과다한 장식, 페르소나
내재된 의미	저항, 앤드로지너스, 추의 미, 페르소나	반항, 자아철규, 쾌락추구, 허무주의, 저항, 앤드로지너스, 추의 미, 페르소나

11) Ted Polhemus, *Streetstyle*, (London: Thames & Hudson Ltd., 1997), p. 93.

글램 패션과 펑크 패션은 1970년대에 유행한 록 음악에서 비롯되었으며, 기존 질서와 관습, 기성세대 에 대한 저항의 표현이었다. 이러한 하위문화의 패션 이 점차 상류층의 패션으로 자리잡아 갔다. 본 연구 에서는 패션의 일부인 메이크업에 포커스를 맞춰 글 램과 펑크의 메이크업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Ⅲ. 글램과 펑크의 메이크업 비교

1. 피부 화장

1) 글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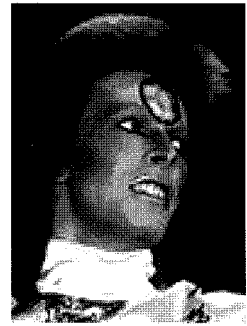
글램 메이크업은 앤드로지너스적 특징을 갖는다. 앤드로지너스는 남자와 여자의 특징을 모두 소유하 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의 선유볼로만 여겨졌던 메이크업은 여성만이 아닌 남성에게도 행해졌다. 남 성은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머리를 길게 기르고, 밝은 색상으로 머리카락을 염색함으로써 전통적인 남성상 을 허물어뜨렸다.

글램 록 뮤지션들은 여성들보다 더욱 여성스럽게 보이기 위해 진한 화장을 하였다. 얼굴 전체의 베이 크업은 옅은 핑크나 흰색으로 화장하였으나, 얼굴을 밝게 빛나 보이게 하기 위해 흰색을 많이 사용하였 다. 데이빗 보위는 공연 때마다 2시간씩 메이크업을 위해 공을 들였다. <그림 7>과 같이 데이빗 보위는 1973년 일본의 유명한 연극배우인 토마수 보루에게서 얼굴 전체를 마치 팬터마인에 나오는 배우처럼 하 양게 화장하는 가부키 스타일 메이크업 테크닉을 배 워서 자신의 얼굴에 화이트 메이크업을 하였다. 화이트는 애도의 의미나 패자를 의미하기도 하며, 과거의 컬러이면서 미래의 컬러이며, 시작과 완성의 극단적 특성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컬러이다. 화이트는 개 방성을 지닌 컬러로서 무한히 확장되어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컬러이다. 글램에서 화이트 메이크업 은 하위문화의 외설적이고 저속한 이미지가 해체주 의적 시각을 통해 새로운 미학으로 연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²⁾.

데이빗 보위는 부대에서 빛이 나 보이기 위해 맑



<그림 7> 글램 메이크업
(www.5years.com).



<그림 8> 글램 메이크업
(www.5year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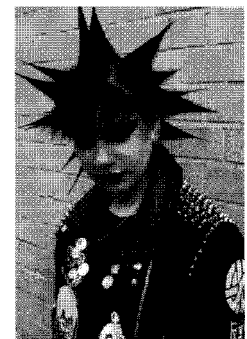
은 화이트 베이스볼 주로 사용하였다. 또한,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금색 베이스볼을 사용하여 이마에 금색 원을 그리기도 하였다. 이는 팬들과 공 감대 형성을 위해서였고, 팬들 역시 데이빗 보워 처 럼 이마에 금색 원을 그리 호응하였다. 글램 록 가수 들은 그 동안 여성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던 베이 크업을 함으로써 기존의 성에 도전하였다.

2) 펑크

펑크 록 가수들도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베이 크업을 진하게 하였다. <그림 9>에서와 같이 펑크의 피부 메이크업은 핏기를 감추기 위해 창백하게 보이 도록 하얗게 화장하였다. 펑크는 창백할 정도의 흰 피부 화장, 검은 눈 화장, 검은색의 입술 화장 등이



<그림 9> 펑크 메이크업
(Street style, p. 95).



<그림 10> 펑크 메이크업
(Street style, p. 95).

12) 김현미, “현대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특성-1990년대 후반 캣워크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p. 62-63.

극한 대비를 이루어 반향과 긴장을 초래하였다.

메이크업은 얼굴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것이지만 한색계열의 색상은 얼굴의 핏기를 감추어 어둡게 함으로써 비인간적이며, 인공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 <그림 1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핑크는 얼굴을 지나치게 희게 하고 검정색을 사용하여 눈꼬리가 올라가는 흑백의 강한 대비를 이루는 메이크업을 함으로써 그들만의 강한 결속과 집단정체성을 표현하였다.

2. 눈 화장

1) 글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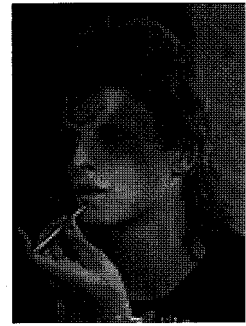
1971년 2월 영국의 TV쇼 “Top of the Pops”에 히피풍의 웨이브진 머리를 어깨에 늘어뜨리고 등장한 마크 볼란의 화장한 얼굴이 무대 조명을 받아 휘황하게 번쩍이면서 글램 록의 시대는 열렸다. 치밀하게 계산된 자기 연출과 예술성을 갖춘 음악으로 큰 명성을 쌓은 인물은 데이빗 보위였다. 그는 눈 주위에 핑크색의 새도를 넓게 펴 바른 후 이마에 금색 원을 그려 넣었다. 데이빗 보위의 메이크업은 짙은 핑크나 보라색의 아이 새도를 곤충처럼 진하게 그렸고 그 위에 반짝이는 가루를 뿌려 조명을 받으면 더욱 빛이 나도록 했다. 검정 마스크라와 파랑색의 마스크라는 그의 여성스럽고 기괴한 외계인의 이미지를 잘 표현해 주었다. <그림 1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데이빗 보위는 눈과 눈썹에 여러 가지 색깔의 번개모양을 그렸는데 눈꺼풀은 분홍색이나 담자색으로만 그렸다.

글램의 눈 화장에는 갈색과 회색이 주로 사용되었고, 입술 화장은 자주나 복숭아색이 사용되었다. 볼의 광대뼈를 강조하여 얼굴을 신비에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였다¹³⁾.

여성은 남성성을 강조하기 위해 눈을 어둡게 칠하고, 마스크라나 립스틱을 바르지 않거나 또는 남성의 수염을 차용하고, 머리를 짧게 잘라 남성성을 표현하였다. 이성, 공격성, 용기, 힘 등의 남성적인 특성과 유연성, 인내, 순종의 여성적인 특성이 균형과 조화



<그림 11> 글램 메이크업 (www.5years.com).



<그림 12> 글램 메이크업 (www.5years.com).

를 이루도록 성적 특성을 교차시켰다.

벨벳 언더그라운드를 탈퇴한 이후 두 리드도 보위의 뒤를 이어 붉은 립스틱과 진한 눈 화장으로 성이분법 논리를 조롱하고 교란시키면서 글램의 대열에 합류하였다.

글램 메이크업에서 눈 화장의 특징은 눈을 검고 짙게 강조했으며, 마스크라를 사용하였다. <그림 12>에서 보이는 것처럼 눈 화장에 주로 사용된 색상은 파란색, 빨간색, 보라색, 검정색 등이었고, 번개 문양과 사각형 문양으로 우주적이고 외계인 같은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2) 핑크

메이크업을 하는 이유가 기존의 여성들에게는 고전적인 의미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면, 핑크의 경우에는 파괴적이고 기괴한 모습으로 추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함이었다. <그림 13>과 같이 핑크족은 지나치게 피부를 희게 표현하고, 눈이나 볼이 움푹 들어가도록 창백한 메이크업을 하였다. 또 눈언저리에 검은 움푹이 모양으로 선을 두르고 눈꼬리를 날카롭게 그리는 드라큐라형의 화장을 하였다¹⁴⁾. 이러한 메이크업의 영향을 받아 일반인들도 짙은 아이 새도 기법을 사용하였고, 굵고 짙은 눈썹이 콧날과 연결되게 음영을 주기도 하였다. 핑크는 눈 주위를 주로 검은색으로 칠함으로 기괴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때로 분홍색이나 보라색 등의 아이 새도를

13) David Bond, 20세기 패션, 정현숙 역 (서울: 경춘사, 2000), p. 224.

14) 장애란, “핑크 록이 반영된 Vivienne Westwood 작품의 기호적 해석,” 복식 39호 (1998), p. 199.

사용하여 눈 주위에 사각형의 문양을 그리기도 하였다.

펑크들의 의상과 메이크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검정색은 부채색으로 죽음이나 공포, 절망의 색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영원과 신비의 권위있는 이미지를 나타내는 고귀한 색이기도 하다. 즉, 어둠의 인상이 강하며 죽음의 이미지를 나타내지만 이러한 암흑속의 경외와 공포는 때로는 절대적인 힘, 숭고한 인상을 주며 또 동시에 퇴폐적인 인상이나 관능적인 인상을 주기도 한다¹⁵⁾.

펑크의 눈 화장에 사용된 색상은 노란색, 주황색,



〈그림 13〉 펑크 메이크업 (*Street style*, p. 98).



〈그림 14〉 펑크 메이크업(*Street style*, p. 98).



〈그림 15〉 펑크 메이크업(*Decades of beauty*, p. 98).

파란색, 분홍색, 보라색, 검정색 등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 중에서 검정색의 사용이 두드러지게 많으며, 검정색을 눈 주위에 넓게 사용했다. 펑크들의 현실에 대한 불안과 저항을 눈 화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그림 14〉, 〈그림 15〉와 같이 그들은 눈 주위에 원형, 삼각형, 사각형, 세의 형상 등 다양한 모양의 문양을 그렸다. 이러한 것은 그들이 갖는 강한 특성으로 그들 내부의 결속력을 다지고, 집단 정체감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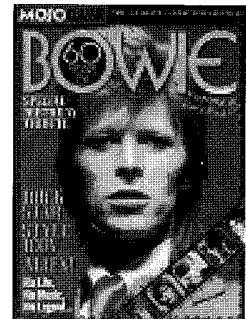
3. 입술 화장

1) 글램

글램 록 가수들은 음악적 정교함보다는 진한 화장을 하고, 여성의 의상을 입는 등 외모나 태도를 중시했다. 그 중에서도 데이빗 보위는 〈그림 16〉과 같이 진한 립스틱과 얼굴 전체를 감싸는 진한 볼터치, 파란색의 눈 화장으로 주목을 끌었다. 8시간 지속 크립은 〈그림 17〉과 같이 데이빗 보위의 입술과 눈꺼풀을 반짝거리도록 많은 윤기를 주었다. 데이빗 보위는 몇몇 콘서트에서 볼과 허벅지에 작은 번개 모양을 그렸다. 때때로 입술에 진주로 만든 은백색 하이라이트처럼 보이는 갈색이나 분홍색의 립 글로스를 바르기도 하였다. 그는 입술이 빛나 보이는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벌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였다. 때로는



〈그림 16〉 글램 메이크업 (www.5years.com).



〈그림 17〉 글램 메이크업 (www.5years.com).

15) 박수진, “앤디 로지너스 록의 색채 특성-1990년대 후반 컬렉션 중심으로-” (연세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 41.



〈그림 18〉 글램 메이크업
(www.5years.com).

검정색으로 입술을 칠해 더욱 괴기스러우면서 전위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였다¹⁶⁾. 〈그림 18〉과 같이 글램 록 가수들은 주로 분홍색과 빨간색의 립스틱을 사용하여 여성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2) 펑크

펑크들은 메이크업에서 검은색을 사용함으로 그들의 허무함과 공허로움, 절망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림 19〉에서 보이는 것처럼 젊은이들은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으로 독특한 헤어 스타일과 괴상한 메이크업을 했는데, 이러한 모습은 기성세대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졌다¹⁷⁾. 젊은이들은 괴기스럽고 충격적인 헤어 스타일이나 메이크업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표현하려고 하였으며, 폭력이 아닌 스타일을 통해 욕구 불만과 좌절을 나타냈다. 얼굴을 지나치게 희게 칠하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입술에 검은 색을 칠하는 펑크의 화장 기법은 사회에 대한 반항, 분노, 좌절을 혐오스러운 방법으로 신체를 통해 표현한 것이었다. 〈그림 2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펑크들은 얼굴에 검은 색으로 점이나 여러 가지 문양을 그려 넣기도 하고, 입술에 검은 색을 칠하는 것으로 문명 파괴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림 21〉에서 볼 수 있듯이 미의 관념을 해체시킨 펑크족들의 원초적 무질서는 대중적 허무주의를 야기하였으며, 그들은 객관적인 아름다움과 추함이라는 판단에 동요되지 않았다.



〈그림 19〉 펑크 메이크업(Street style, p. 89).



〈그림 20〉 펑크 메이크업(Street style, p. 89).



〈그림 21〉 펑크 패션(Fifty years of Fashion, p. 96).

4. 바디 메이크업

1) 글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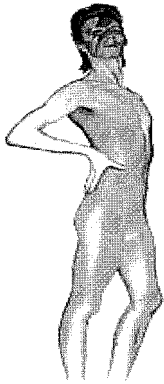
마크 불란은 번쩍거리는 의상과 화장으로 록 팬뿐만 아니라 패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데이빗 보위는 이색적인 메이크업과 무대 매너로 일종의 드라마적 쇼를 연출하여 젊은이들의 각광을 받았다. 글램 록 뮤지션들은 금과 은빛으로 장식을 대담하게 한 의상에 10cm 정도의 부츠를 신고, 반짝이 화장품을 사용한 중성적 센스로 어딘가 퇴폐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림 22〉와 같이 데이빗 보위는 바디 메이크업에도 반짝이는 가루를 사용하여 피부를 더욱 밝아 보이게 하였다. 그의 이러한 메이크업은 무대 위에서 부끄러움을 덮어 주는 역할을 하였다¹⁸⁾.

16) 이현주, *Op. cit.*, p. 50.

17) 엄소희, “펑크 패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 27.

18) 이현주, *Op. cit.*, p. 50.



〈그림 22〉 글램 바디 메이 크업(www.5years.com).



〈그림 23〉 펑크 바디 메이 크업(Street style, p. 95).

2) 펑크

펑크들은 얼굴 화장뿐만 아니라 〈그림 23〉과 같이 몸에도 문신을 하거나 문양을 그려 넣었다. 그들의 문신은 영구적인 것도 있지만 일시적인 문신이나 바다용 스티커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그들이 사용한 문양들은 대부분 기괴하고 무시용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기성세대에게 저항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5. 글램과 펑크 메이크업에 나타난 공통적 특성

1) 저항

저항은 주류사회가 정한 규범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한다.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서 주류 문화에 속하지 못하는 구성원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집단들은 심리적으로 소외감과 좌절을 느끼게 되었고, 주류 문화의 강력한 영향력에 대하여 자신들의 정체성 확립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들만의 독특한 행동양식을 규정하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의복, 외모, 언행 등에서 독특한 스타일을 강조하여 결속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집단정체성을 학습한다¹⁹⁾. 글램과 펑크는 청소년들의 저항적 하위문화이다. 메이크업은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여성의 욕구 실현을 위한 개인적 행동일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여성이 지켜야 할 역할 규범으로서의 의미가 강한 사회적 행동이다. 대

중사회 속에서 식대의 조류를 거부하고 사회로부터 이탈을 추구하기 위해 기존의 정상적인 스타일을 부정하며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해 온 록커들은 과격적인 메이크업으로써 기성 가치관에 대한 무언의 시각적 저항을 시도하였다. 글램은 젊은 메이크업에 반짝이를 사용하고, 얼굴에 여러 가지 문양을 그림으로써 기성세대에 저항하였다. 펑크 메이크업은 눈과 입술에 검정색을 사용하여 그들의 허무와 좌절과 미래가 없음을 표현하며 기성세대에 저항을 나타냈다.

2) 앤드로지너스

앤드로지너스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말로 남자와 여자의 특징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글램 메이크업과 펑크 메이크업은 앤드로지너스적 특성을 갖는다. 전통적으로 여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메이크업이 남성의 록 뮤지션들에게도 행해졌다. 록 뮤지션들은 진한 메이크업을 하였고 여성스럽게 보이기를 원했다. 글램 록의 남성 가수들은 얼굴을 희고 빛나 보이도록 화장하고, 눈 화장과 입술 화장에서도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핑크색이나 보라색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속눈썹과 마스크라까지 사용하는 섬세함을 보였다. 입술 화장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도록 글로스를 사용함으로써 강한 앤드로지너스적 특성을 나타냈다. 반면, 여성들은 눈썹을 길게 그리고, 눈 메이크업을 하였으며, 짧은 헤어 스타일을 함으로써 남성적 특성을 나타냈다. 펑크는 과격하고 전위적인 방법으로 여성의 외모에 남성적 요소를 부여하였다. 펑크는 남녀 구별 없이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메이크업을 하였고, 얼굴에 여러 가지 문양을 그리며 심은 화장을 하였다.

3) 추의 미

추는 가치의 붕괴나 생의 부정이지만 예술일반에서는 적극적인 의식을 가지며, 미적 가치에의 전환이다. 혐오나 불쾌의 감정을 일으키는 추가 다양한 개별 간의 충돌과 구별, 대립을 통하여 가장 인간적인 문제로 상승되어짐을 현대에서는 많이 관찰할 수 있다. 즉 회화에서는 비 비례적인 추 형식이 인간적인 자아형성을 표현해 내고 있고, 문학과 음악 속에서도 미와

19) 유송옥 외, *복식문화*, (서울: 교문사, 2000), p. 274.

추의 대립적 상승작용이 한층 형이상학적 미 개념으로 용이하게 이끈다. 추는 미의 대립개념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대립적인 개념은 아니고 다만 미가 결핍된 상태를 말한다²⁰⁾. 글램 메이크업은 얼굴이 마치 팬터마임에 나오는 배우처럼 하얗게 가부키 스타일의 메이크업을 하였다. 눈 주위에 곤충 모양으로 새도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조화와 색상 배합의 일탈을 통해 추의 미를 표현하였다. 또한, 계층과 인종차별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된 핑크 메이크업은 움푹 들어간 볼, 창백할 정도로 흰 얼굴, 멍든 듯 한 눈언저리, 검은 입술 등으로 괴기스러운 추의 미를 표현하였다.

4) 페르소나

페르소나는 본래 고대 그리스의 연극배우가 쓰는 탈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그것이 점차 인생이라는

연극의 배우인 인간 개인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페르소나에서의 가면은 인간의 가장 외적인 인격으로 인격의 가면을 말한다. 즉, 사회적 자아로서 사회적 역할에 따라 명명되어지는 ‘~으로서의 나’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가 분화되고, 한 사람이 사회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됨에 따라 개인의 페르소나는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페르소나는 집단정신의 한 단면이며, 그것은 흔히 개성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가면이다²¹⁾.

데이빗 보워와 마크 불란 등 글램 록 가수들은 의상과 헤어 스타일, 메이크업 등을 통해 적절한 때에 적절한 변신을 했다. 마크 불란이 우주십자군으로 또는 보워가 지기 스타더스트나 알라딘 세인으로 각각 변신함으로써 그들은 페르소나를 통한 자신들의 표현의지를 나타냈다²²⁾. 글램 메이크업에서는 우주적

<표 2> 글램과 핑크 메이크업의 비교

구분		글램 메이크업	핑크 메이크업
피부 화장	피부 표현	남성: 흰색, 분홍색, 가부키 화장 여성: 노 메이크업, 수염 착용	흰색
	흰색 사용 목적	얼굴이 빛나보이도록	얼굴이 창백하고 지나치게 희게 보이도록
눈 화장	눈썹	남성: 굵고 짙게, 검정색과 청색의 마스크라 사용 여성: 자연스럽게	굵고 진하고, 과장되게
	아이섀도우	분홍색, 보라색, 파랑색, 회색, 금색, 검정색, 눈 주위에 검은 선을 여러 개 그려 눈 강조, 반짝이 사용	검정색, 노랑색,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 파랑색, 눈코리가 올라가는 키메라 화장
	문양	번개문양, 골드 서클, 사각형	눈 언저리에 웅덩이 모양, 원모양, 사각형, 삼각형, 새의 모양, 검은 점
입술 화장	색상	분홍색, 자주색, 빨강색, 검정색, 은백색의 하이라이트, 분홍색 글로스, 펄(pearl) 제품 사용	검정색, 빨강색, 파랑색
바디 메이크업		반짝이는 가루 사용	문신, 문양을 그려 넣음
표현된 이미지		여성스러움, 외계인, 괴기함	문명과괴적, 반항적, 불쾌함
내재적 의미		기존 성별에 대한 도전	기성세대에 대한 도전, 반항, 허무주의, 집단정체성 표현
기타		번개모양 문신, 얼굴 전체를 감싸는 듯한 진한 볼 터치	영구 문신, 일시적 문신, 사선의 진한 볼 터치

20) 김민자,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I)-반미학 열린패션을 중심으로-,” 복식 38호 (1998), p. 109.

21) 이부영, 분석 심리학-C. G. Jung의 인간심성론, (서울: 일조각, 1978), pp. 82-83.

22) 정희영, 정현숙, Op. cit., p. 55.

이미지와 동물의 페르소나를 통해 현실도피적 경향을 찾아 볼 수 있다. 메이크업을 통해 상황에 따른 페르소나를 적절히 활용하여 유희성을 추구하였다.

핑크는 징 박한 가죽점퍼와 험란한 머리 업셋, 괴기스러운 메이크업 등을 통해 집단정신에 동화되고 그들이 정한 페르소나와의 동일시를 이루었다. 과장되게 부풀린 머리와 진한 메이크업으로 인해 인간미를 찾아 볼 수 없는 인형 같은 모습을 연출하였다.

〈표 3〉과 같이 글램과 핑크 메이크업의 공통적 특성으로는 저항, 앤드로지너스, 추의 미, 페르소나 등으로 분석되었으며, 각 특성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글램과 핑크 메이크업의 차별성이 나타났다.

IV. 결 론

1970년대의 글램과 핑크는 전략적으로 상업주의와 대중매체의 영향력을 이용할 줄 알았다. 이들은 때로는 음악적 내면보다는 음악인들의 스타일이나 이미지와 상징이라는 표피에 혼신을 기울여 중산층의 규범, 문화, 그리고 정통 록의 진정성으로부터 스스로를 차별화 해 나갔다. 글램과 핑크는 음악에서 비롯되어 현대 패션사에 커다란 획을 그으며, 유행의 선두자리에서 오늘날까지도 재현되고 있다.

글램 메이크업과 핑크 메이크업의 특징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피부 화장에서는 글램과 핑크가 공통적으로 흰색

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그 사용목적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글램 메이크업에서는 얼굴이 맑고 빛나 보이게 하기 위해 흰색 베이스를 사용한 반면, 핑크 메이크업에서는 보다 창백하고 괴기스러워 보이도록 흰색을 사용하였다.

눈 화장에서는 글램 메이크업에서는 남성의 눈썹을 굵고 진하게 그렸고, 여성의 눈썹을 자연스럽게 그렸다. 반면에, 핑크 메이크업은 남성과 여성 모두 굵고 진하며 과장된 눈썹을 그렸다. 아이 새도에 있어서 글램 메이크업은 검정색을 비롯한 분홍색과 과란색을 사용하였다. 눈 주위에 여러 개의 선을 그려 눈을 강조하고, 눈 주위에 번개모양의 문양을 그렸으며, 이마에 금색 원을 그려 여성스러움과 외계인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핑크 메이크업에서는 눈 꼬리가 올라가는 키메라 화장과 눈 언저리에 웅덩이 모양을 검은 색으로 그리거나 원이나 사각형을 그려 분병 파괴적이고 반항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글램 메이크업과 핑크 메이크업은 눈 화장을 매우 강조하는 눈 주위에 다양한 색상의 문양을 그림으로써 시선을 집중시켰다.

입술 화장에 있어서 글램 메이크업은 분홍색, 자주색, 빨간색, 검정색과 은회색의 하이라이트나 분홍색 글로스, 랩 제품을 사용하였다. 핑크 메이크업은 빨간색과 분홍색을 사용하기도 했으나, 흰 얼굴에 검정색으로 입술을 칠하여 문명 파괴적인 이미지와 추의미를 나타냈다.

〈표 3〉 글램과 핑크 메이크업의 공통적 특성과 표현 방법의 차별성

구분	글램 메이크업	핑크 메이크업
저항	· 짙은 메이크업에 반짝이 사용 · 얼굴에 여러 가지 문양을 그림	· 눈과 입술에 검정색 사용
앤드로지너스	· 얼굴을 희고 빛나 보이도록 화장 · 눈 화장과 입술 화장은 핑크, 보라색 사용 · 속눈썹과 마스크라 사용 · 입술 화장에 반짝이며 빛나도록 랩 글로스 사용	· 남녀 구별 없이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메이크업 · 얼굴에 여러 가지 문양을 그림, 짙은 화장을 함
추의 미	· 가부키 스타일의 메이크업 · 눈 주위에 번개모양의 새도 · 부조화, 색상배합의 일당	· 움푹 들어간 볼 · 창백한 흰 얼굴 · 병든 듯한 아이 새도 · 검은 입술
페르소나	· 우주적 이미지 · 동물의 페르소나 · 유희성 추구	· 괴기스러운 메이크업 · 진한 메이크업 · 인형 같은 모습 연출

바디 메이크업에 있어서 글램 메이크업은 반짝이는 가루를 사용하여 피부를 더욱 밝아 보이게 하였다. 반면, 핑크 메이크업은 몸에 문신이나 문양을 그려 넣었다. 그들이 사용한 문양들은 대부분 기괴하고 무서움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기성세대에게 저항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또한, 글램과 핑크의 메이크업에서 공통적으로 저항, 앤드로지너스, 추의 미, 페르소나의 특성들이 분석되었다. 그러나 공통적 특성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글램과 핑크 메이크업의 차별성이 나타났다. 저항에 있어서 글램 메이크업은 질은 메이크업에 반짝이를 사용하는 것과 얼굴에 여러 가지 문양을 그렸고, 핑크 메이크업은 눈과 입술에 검정색을 칠함으로 기성 세대에 대한 저항을 나타냈다. 앤드로지너스에 있어서 글램 메이크업은 얼굴을 희고 빛나 보이게 하며, 눈화장과 입술 화장을 핑크와 보라색을 사용하고 입술에 립글로스를 사용하여 반짝이게 하였고, 핑크 메이크업은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메이크업으로 표현하였다. 추의 미에 있어서 글램 메이크업은 가부키 스타일의 메이크업과 눈 주위에 곤충 모양의 새도를 칠해 부조화와 색상 배합의 일탈을 통해 표현하였고, 핑크 메이크업은 움푹 들어간 볼, 창백한 흰 얼굴, 멍든 듯한 눈언저리, 검은 입술 등으로 괴기스러운 추의 미를 표현하였다. 페르소나에 있어서 글램 메이크업은 우주적 이미지와 동물의 페르소나를 표현하였고, 핑크 메이크업은 괴기스러운 메이크업, 인형 같은 모양을 표현하였다. 글램과 핑크의 메이크업은 같은 시기에 음악을 배경으로 하여 형성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졌으나, 글램은 우주와 미래의 이미지에 집착함으로써 현실도피의 경향을 보인 반면 핑크는 그들의 스타일을 통해 현실에 대해 적극적인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글램과 핑크족들은 그들만의 메이크업을 통해 개성과 정체성을 추구하였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글램과 핑크 패션에 대한 비교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공차숙 (2002). "하위문화에 나타난 헤어 스타일과 메이크업 분석."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자 (2004). *복식미학 강의 2*. 서울: 교문사.
- 김민자 (1998).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1)-반미학(Anti Aesthetics) 열린 패션(Open Fashion)을 중심으로." *복식* 38호.
- 김은아 (2000). "글램 스타일의 디자인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미 (2000). "현대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특성-1990년대 후반 캐주얼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진 (2002). "앤드로지너스 룩의 색채 특성-1990년대 후반 컬렉션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이자 (2002). "포스트모던 음악의 등장과 민중문화 전통의 재건-1970년대 글램 록과 핑크 록에 대한 신문문화사적 해석." *미국사 연구* 16호.
- 손향미, 박길순 (2005). "현대 핑크 패션의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29권 11호.
- 엄소희 (1998). "핑크 패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송옥, 이은영, 황선진 (2000). *복식 문화*. 서울: 교문사.
- 이부영 (1978). *분석 심리학-C. G. Jung의 인간 심성론*. 서울: 일조각.
- 이현주 (2000). "현대 패션에 나타난 Glam에 관한 연구-David Bowie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애란 (1998). "핑크 록이 반영된 Vivienne Westwood 작품의 기호적 해석." *복식* 39호.
- 전선정, 안현경, 이귀영, 문운경 (2004).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서울: 청구문화사.
- 정희영, 정현숙 (2007). "글램과 핑크의 헤어 스타일에 관한 연구-1970년대를 중심으로-." *복식문화 연구* 15권 5호.
- 최미라 (2004).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추 이미지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ond David (2000). *20세기 패션*, 정현숙 역. 서울: 경춘사.
- Mulvey, Kate and Richards Melissa (1998). *Decades of Beauty*. London: Octopus Publishing Group

- Ltd.
Polhemus, Ted (1997). *Streetstyle*. London: Thames & Hudson Ltd.
Roysbuker (1999). *대중음악사전*, 이정업, 정호연 역. 서울: 한나래.
- Russell, Douglas A. (1983). *Costume History and Style*. New Jersey: Englewood Cliffs & Co. Inc.
Seeling, Charlotte (2000). *Fashion*. cologne: Konemann.
Steele, Valerie (1997). *Fifty Years of Fashion*. New York: Yale University.